

COMPARATIVE WORLD HISTORY

서양사와 동양사 비교

다양성·교류·상호영향의 관점에서 본 문명 발전의 역사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비교세계사-비교문명사 연구보고서 · 2026

서양사와 동양사 비교

A Comparative History of Western and Eastern Civilizations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2026

편집 원칙

이 보고서는 서양과 동양을 고정된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비교 단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각 문명권 내부의 다양성·권력관계·상호교류를 먼저 확인한다. “서양의 우월성”과 “동양의 정체성”을 결론으로 미리 전제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설명을 증거와 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요약: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경로다

서양사와 동양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같은 문화적 성격표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을 조직한 방식의 장기적 차이에 있다. 서유럽에서는 로마제국 해체 이후 왕권, 귀족, 교회, 도시, 법원과 후대의 의회가 중첩되고 경쟁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농업지대, 문자 행정, 호적·조세·과거제, 유교적 정당성에 기초한 통일 왕조가 반복적으로 재건되었다. 그러나 비잔틴·러시아·절대왕정은 강한 중앙집권을 보였고, 일본의 막부와 번 체제는 서유럽과 유사한 봉건적 분권을 보였으므로 단순한 동서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양”은 하나가 아니다. 중국의 문관 관료제, 일본의 무사 지배와 번, 한국의 왕조·양반제, 인도의 카스트와 다종교·다언어 정치, 이슬람 세계의 샤리아·울라마·도시 상업망은 상이한 사회질서다. “서양”도 그리스의 폴리스, 로마의 법과 제국, 라틴 기독교권, 동유럽과 러시아, 대서양 세계, 북아메리카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근대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서유럽에서 먼저 발생한 이유에는 경쟁국가 체제, 대학·인쇄·학회, 특허와 금융, 높은 임금과 값싼 석탄, 대서양 식민지와 노예노동, 아메리카 은과 시장, 인도와 중국의 기술·상품·지식이 함께 작용했다. 어느 하나의 단일 원인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대분기 논쟁은 18세기까지 중국 장강 하류와 서유럽 선진지역의 생활수준·시장화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주장을 통해 “오래된 서구 우월성” 서사를 수정했지만, 제도·에너지·전쟁·제국의 시점과 비중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동서양은 고립된 문명이 아니라 몽골제국, 실크로드, 인도양 무역, 이슬람 번역운동, 십자군, 대항해시대, 식민주의, 노예무역, 세계대전과 냉전을 통해 서로를 재구성했다. 현대의 미국·유럽·중국·한국·일본·인도·중동은 전통의 단순한 잔존물이 아니라 서구 제도, 식민 경험, 민족주의, 사회주의, 개발국가, 세계시장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다중근대성의 결과다.

핵심 판단	내용
차이	권력의 분산·집중, 법의 조직, 엘리트 재생산, 가족·재산 제도, 도시와 국가의 관계, 지식과 기술의 제도화가 서로 다른 경로를 형성했다.
공통점	농업 잉여, 전쟁과 조세, 종교적 정당성, 신분제, 상업망, 제국 건설, 가족과 재산의 세대 이전은 거의 모든 문명권의 공통 과제였다.
내부 다양성	서유럽 내부, 동유럽·러시아, 중국·일본·한국, 인도, 이슬람권은 서로 다른 경로를 보였다.
상호영향	지식·종교·화폐·작물·질병·무기·법·국가모델이 끊임없이 이동했다.
현대적 함의	오늘날의 제도 차이는 고정된 문화가 아니라 역사적 선택과 충격, 제국·전쟁·개혁의 누적 결과다.

목차

장	제목	핵심 범위
01	비교의 출발점	개념, 방법론, 비교 단위
02	“서양”과 “동양”의 발명	용어의 역사와 오리엔탈리즘
03	환경·생산·국가 형성	지리결정론을 넘는 물질적 조건
04	고대 세계	폴리스·로마·진한·인도·이슬람 이전
05	중세의 다중 세계	기독교권, 이슬람권, 중국·한국·일본·인도
06	근세와 초기근대	국가·상업·군사·인쇄의 확대
07	권력 분산과 중앙집권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조건 비교
08	지역별 동양의 다섯 경로	중국·일본·한국·인도·이슬람
09	법·재산·신분·가족	권리와 의무를 조직한 제도
10	종교·철학·인간관	자유·질서·공동체의 사상사
11	도시·상업·금융·지식	시장과 과학기술의 제도화
12	대분기와 산업혁명	경쟁하는 설명의 종합
13	교류·충돌·제국	실크로드에서 세계대전까지
14	19 세기 비서구의 대응	개혁·혁명·식민지·국민국가
15	20 세기 이후의 재구성	민주주의·공산주의·개발국가·세계화
16	역사해석의 주요 이론	유럽중심주의에서 다중근대성까지
17	영역별 종합 비교표	정치·경제·사회·법·사상·과학·국제관계
18	오늘날 세계에 주는 의미	미국·유럽·중국·한국·일본·인도·중동
19	결론과 연구 질문	비교사의 올바른 사용법
부록	연표·오해 교정·참고문헌	학습과 연구를 위한 도구

01

비교의 출발점

문명의 “성격”이 아니라 제도·자원·권력·교류의 경로를 비교한다

1.1 비교 단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서양”과 “동양”은 자연적 대륙 구분이 아니라 특정 시기와 문제의식 속에서 구성된 분석 범주다. 고대 지중해사를 비교할 때는 로마와 한 제국이 유용한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중세에는 라틴 기독교권·비잔틴·이슬람권·송·고려·일본·인도 각 지역을 분리해야 한다. 근대에는 대서양 세계, 러시아 제국, 오스만, 청, 일본, 식민지 인도처럼 연결된 제국과 시장을 함께 보아야 한다.

비교사는 차이를 찾는 작업이지만, 차이를 문명의 영구한 본질로 만드는 순간 설명력을 잃는다. 국가가 강하거나 약한 이유, 도시가 자치권을 얻는 조건, 가족이 재산 이전을 통제하는 방식, 상업이 정치권력과 맺는 관계는 전쟁, 조세, 토지제도, 종교기관, 기술, 인구와 생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1.2 대칭적 비교와 연결된 역사를 함께 사용한다

1. 대칭적 질문: 서양에는 법이 있고 동양에는 관습만 있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 지역에서 법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적용되었는지 같은 질문을 던진다.
2. 내부 비교: 서유럽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북인도와 남인도처럼 같은 문명권 내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한다.
3. 시간의 비대칭: 동일한 연도보다 국가 형성·상업화·산업화의 단계와 위기를 비교한다.
4. 연결사: 실크로드·인도양·대서양·몽골제국·식민지 네트워크를 통해 한 지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결합했는지 본다.
5. 반사실적 검토: 석탄, 아메리카 식민지, 국가 경쟁, 인쇄문화 중 일부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1.3 비교에서 피해야 할 오류

- 목적론: 현대의 민주주의·산업화를 모든 역사의 예정된 종착점으로 보는 오류.
- 선택 편향: 서양에서는 성공 사례만, 동양에서는 실패 사례만 고르는 오류.
- 개념의 비대칭: 서양의 국가는 “제도”, 동양의 국가는 “전제”라고 다른 언어로 평가하는 오류.
- 현재주의: 오늘날의 국경과 민족을 과거에 그대로 투사하는 오류.
- 문화결정론: 유교·기독교·이슬람을 고정된 행동 규칙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적 조건을 무시하는 오류.

핵심 명제

서양사와 동양사의 차이는 “누가 더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인간사회가 국가·법·종교·시장·가족·지식을 서로 다르게 결합한 역사적 실험의 차이이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비교사 · 연결사 · 비대칭적 시간 · 내부 다양성 · 목적론 비판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로마-한 비교, 대서양 세계의 형성	역사가·문명 비교 연구자	동서양은 두 개의 고정된 성격이다.	범주는 문제와 시기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대 국가와 시장의 차이를 문화적 속명으로 오해하지 않게 한다.

02

“서양”과 “동양”의 발명

방향어가 문명·인종·발전 단계의 언어가 된 과정

2.1 고대의 방향어에서 근대의 문명 범주로

라틴어 oriens 는 해가 뜨는 쪽, occidens 는 해가 지는 쪽을 뜻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페르시아·이집트·시리아를 “동방”이라고 부를 때 그 경계는 오늘날의 아시아와 일치하지 않았다. 로마제국의 동서 분할과 기독교 세계의 라틴-그리스 분화도 서방과 동방이라는 언어를 강화했지만, 이는 현대의 “서양 대 아시아” 구도와는 달랐다.

근대 유럽의 대항해, 식민지 팽창, 계몽주의와 비교언어학·인종론은 세계를 문명 단계로 배열했다. “서양”은 그리스·로마·기독교·과학·자유 의 계보로 재구성되었고, “동양”은 고대적·정체적·감성적·전제적인 타자로 묘사되었다. 19 세기 오리엔탈리즘은 중동·인도·중국을 서로 다른 사회임에도 유럽의 대립항으로 묶었다.

2.2 ‘동양사’와 ‘서양사’의 학문적 제도화

유럽의 대학과 제국 행정은 고전학, 동양학, 인도학, 중국학, 이슬람학을 분리하여 발전시켰다. 일본은 메이지기 이후 서구 역사학의 시대구분과 학문 분류를 수용하면서 동양사·서양사·국사를 구분했고, 이 분류는 한국과 중국의 근대 교육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익숙한 “동양사/서양사” 구분 자체가 근대 세계질서와 학문제도의 산물이다.

이 범주는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슬람 세계를 동양으로 넣을지 지중해 세계로 볼지, 러시아를 서양으로 볼지 유라시아로 볼지,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를 어디에 배치할지 같은 문제를 낳는다. 세계사는 이러한 배제와 경계를 드러내기 위해 연결과 이동을 강조한다.

2.3 서양과 동양 내부의 이질성

범주	내부의 주요 차이
서양	그리스 폴리스와 로마제국, 라틴 가톨릭과 동방정교, 봉건적 서유럽과 전제적 러시아, 식민제국 유럽과 공화주의 북아메리카는 서로 다른 국가·교회·토지·법의 역사를 갖는다.
중국	통일왕조의 반복, 북방 유목세력과의 관계, 강남 상업화, 한족·비한족 왕조와 지역사회가 장기사를 구성한다.
한국	고려와 조선, 왕권과 문벌·양반, 성리학적 친족질서, 식민지와 분단 경험이 결합한다.
일본	율령국가, 쇼겐과 무사, 막부-번 체제, 메이지 국가, 제국주의와 전후 민주주의의 단절·연속이 있다.
인도	카스트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왕국·제국, 힌두·불교·이슬람·시크 전통, 지역 언어와 상업망이 공존한다.
이슬람 세계	아랍·페르시아·튀르크·인도·아프리카의 정치와 문화가 다르며 칼리프, 술탄, 울라마, 상인, 부족·도시의 관계도 변동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오리엔탈리즘 · 옥시덴트 · 학문 분류 · 문명 담론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	----------	--------	-------	--------

로마 동서분할, 대항해, 제국주의	에드워드 사이드, 근대 동양학자	서양과 동양은 고대부터 같은 의미였다.	근대 제국과 학문제도가 현재의 범주를 크게 만들었다.	정책·언론에서 문명 본질론을 경계하게 한다.

03

환경·생산·국가 형성

물질적 조건은 가능성을 만들지만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3.1 강, 평원, 산맥, 바다와 정치공간

중국의 황허·장강 유역은 광대한 농업지대와 수리·치수, 곡물 운송, 군사 방어를 결합한 대규모 국가의 반복적 재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강과 평원이 자동으로 전제국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전국시대의 경쟁, 진의 군현제, 한 이후의 문서행정, 유교적 교육과 엘리트 통합이 함께 작동했다.

유럽은 반도·산맥·해안·하천으로 분절되었고, 로마제국 붕괴 이후 단일 제국이 장기간 재건되지 못했다. 해상과 하천은 도시와 무역을 연결했지만 동시에 복수 국가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프랑스·스페인·러시아처럼 대규모 중앙집권국가도 성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분열은 지리만이 아니라 제국·교회·왕조정치의 산물이었다.

인도는 인더스·갠지스 평원과 데칸 고원, 계절풍 해안, 산악·삼림 지역이 병존해 통일제국과 지역왕국의 순환을 낳았다. 중동은 관개농업, 초원·사막 이동, 지중해와 인도양 교역의 교차점이라는 조건 속에서 도시·상업·제국이 발달했다.

3.2 농업생산과 세금, 군사, 엘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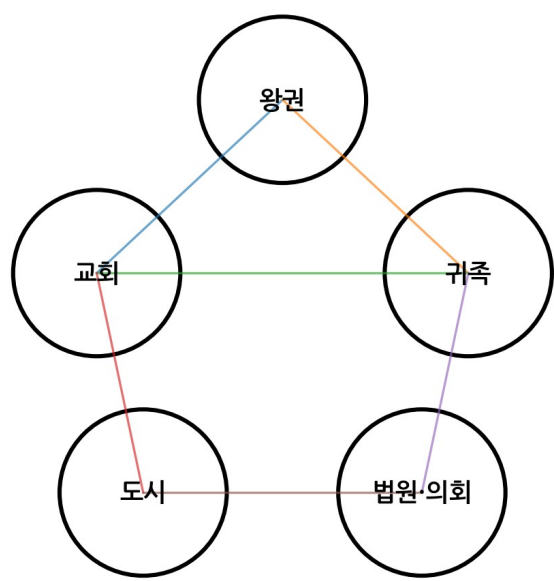
농업 잉여는 관료·군인·사제·도시를 부양했다. 국가의 핵심 문제는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며, 지방 엘리트의 협력을 얻고, 외적과 반란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호적·토지세·운하, 로마의 속주세와 군단, 이슬람 제국의 토지세·인두세, 인도의 지대 징수, 유럽 봉건영주의 장원과 군역은 서로 다른 해결책이었다.

3.3 지리결정론의 한계

인과관계의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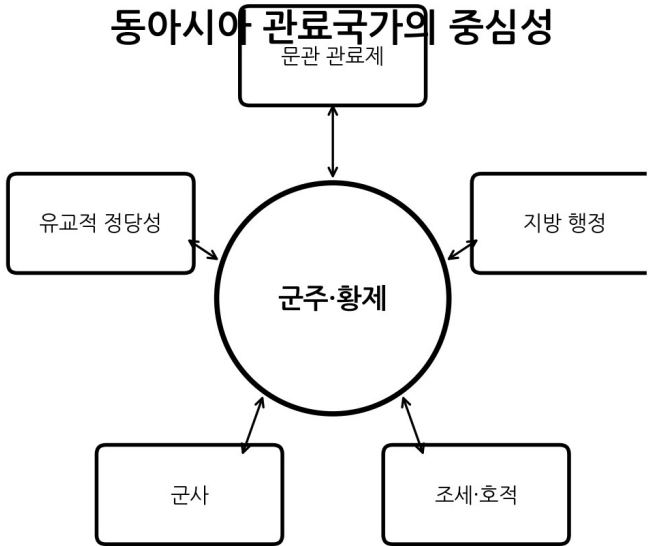
지리는 비용과 기회를 설정한다. 생산방식은 잉여와 노동조직을 바꾼다. 그러나 국가 형태는 전쟁, 엘리트 연합, 종교적 정당성, 법, 기술, 우연한 위기와 정책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같은 자연환경에서도 시대별로 다른 제도가 출현할 수 있다.

서유럽의 다중 권력 중심



경쟁·협상·중첩 관할이 제도적 다양성을 낳음

동아시아 관료국가의 중심성



시험·문서·세금·법령이 광역 통치를 가능하게 함

그림 1. 권력의 분산과 중앙집권은 “문명 성격”이 아니라 제도적 관계의 결과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생태 · 농업 잉여 · 조세국가 · 군사경쟁 · 지리결정론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진 통일, 로마제국 해체, 대운하	관료·지방엘리트·군사집단	큰 강은 곧 전제정치를 만든다.	지리는 조건일 뿐 제도와 전쟁의 매개를 거친다.	기후·자원 논쟁에서 단일원인 설명을 피하게 한다.

04

고대 세계

폴리스와 제국, 율령과 법, 종교와 도시가 형성된 시기

4.1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 세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폴리스의 경쟁체제였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민 남성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을 배제했다. 스파르타는 군사적 과두정이었고, 마케도니아와 헬레니즘 왕국은 군주제였다. 따라서 “서양 고대=민주주의”라는 등식은 부분적이다.

로마는 공화정의 원로원·민회·집정관을 거쳐 제정으로 전환했다. 로마법은 시민권·재산·계약·상속·법인적 집단의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제국의 행정과 사회는 노예제·가부장권·신분차별에 기반했다. 로마의 유산은 직접적 연속이라기보다 중세 교회법, 대학의 법학, 근대 국가의 수용을 통해 재구성되었다.

4.2 중국의 전국시대와 진한 제국

전국시대의 격렬한 경쟁은 군사동원, 철제 농기구, 세금, 군현제, 성문법, 인재 선발을 촉진했다. 진은 봉건적 세습 영지를 약화시키고 군현과 표준화로 통일했지만 과도한 동원과 형벌로 단명했다. 한은 진의 행정틀을 계승하면서 유교적 정당성과 지방 엘리트의 협력을 결합했다.

한 제국은 로마와 마찬가지로 도로·세금·군사·법·도시를 갖춘 대제국이었으나, 귀족적 시민공동체보다 황제 아래의 문서행정과 가족·촌락의 질서를 강조했다. 그렇다고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율령과 형벌, 행정규정은 국가 통치의 핵심이었다.

4.3 인도와 서아시아

마우리아 제국은 관료·군대·세금·도로를 통해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고, 아소카는 불교적 도덕정치를 제국 통치와 결합했다. 이후 인도는 단일 제국과 지역왕국이 교대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속주제·왕의 길·다민족 통치를 발전시켰고, 유대교·조로아스터교·그리스 문화와의 접촉은 후대 기독교·이슬람 세계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시대별 주요 전개의 병렬 비교 - 동시성보다 경로의 차이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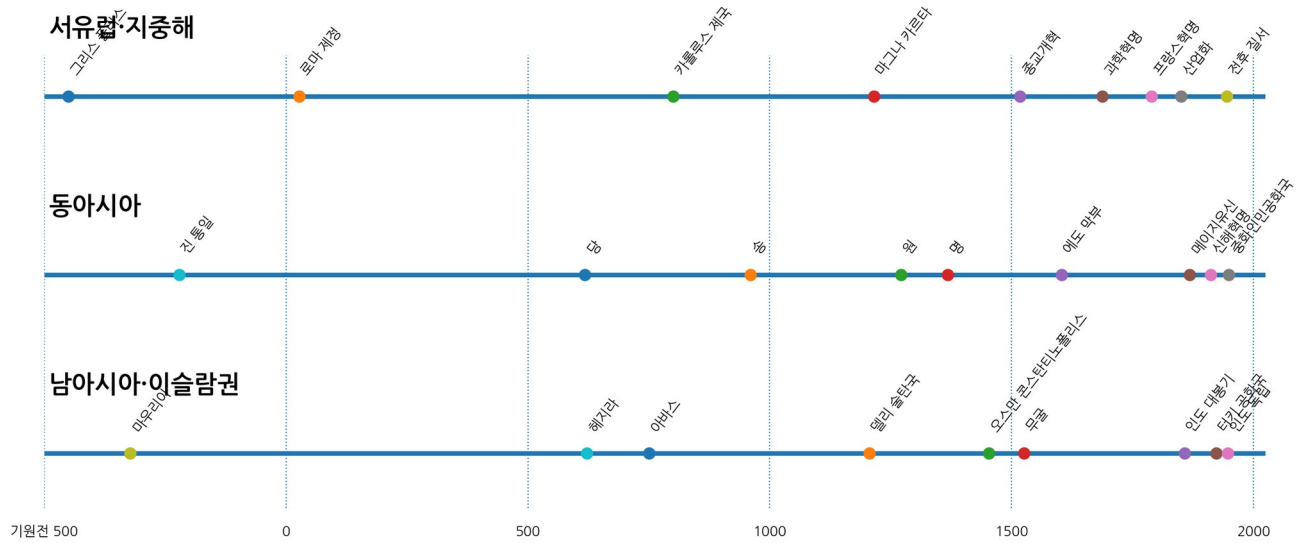


그림 2. 동일한 “고대-중세-근대” 구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전환을 병렬로 본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폴리스 · 공화정 · 제정 · 군현제 · 율령 · 다민족 제국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아테네 민주정, 로마 제정, 진 통일, 한 제국, 마우리아	페리클레스, 아우구스투스, 진 시황, 한 무제, 아소카	고대 서양은 민주주의, 고대 동양은 전제정치였다.	서양에도 제국·노예제·과두정이, 동양에도 법·상업·정치 경쟁이 있었다.	시민권과 국가능력의 서로 다른 기원을 이해한다.

05

중세의 다중 세계

라틴 기독교권·비잔틴·이슬람·송·고려·일본·인도의 병존

5.1 서유럽: 제국 해체와 권력의 중첩

서로마제국 붕괴 이후 왕국, 귀족 영지, 교회, 수도원, 도시가 권력을 나누었다. 봉건제는 단일한 유럽 제도가 아니라 토지·군역·주종관계·장원경제의 다양한 결합이었다. 왕은 명목상 최고권력자였지만 지방 귀족과 성직자의 협력 없이는 조세와 군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교황권과 황제·왕권의 경쟁, 교회법과 세속법의 중첩, 도시 코뮌과 길드의 자치는 협상과 법적 다원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농노제와 신분 불평등은 강했고, 종교적 이단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존재했다.

5.2 비잔틴과 이슬람 세계

비잔틴 제국은 로마의 황제권·관료제·법을 계승한 강한 중앙집권국가였으며, 정교회와 황제의 관계도 서유럽보다 긴밀했다. 이것은 “서양은 항상 분권적”이라는 명제를 반박한다.

이슬람 세계는 7세기 이후 칼리프국의 광역 통치, 아랍어 행정과 학문, 샤리아와 율라마, 시장·상인·와크프를 결합했다. 바그다드·카이로·코르도바·사마르칸트는 지식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학·수학의 번역과 발전은 후대 라틴 유럽에 전달되었다.

5.3 동아시아와 인도

당과 송은 과거제와 문관 관료제를 확대했고, 송대에는 도시·화폐·인쇄·상업·기술이 크게 성장했다. 고려는 불교와 귀족정치, 과거제, 문벌과 무신정권을 경험했다. 일본은 율령국가에서 쇼엔과 무사세력이 성장해 가마쿠라 막부로 전환했다.

인도에서는 굽타 이후 지역왕국과 사원경제가 발전했고, 13세기부터 델리 술탄국이 북인도를 통치했다. 이슬람 통치와 힌두 사회는 갈등뿐 아니라 행정·언어·예술·상업에서 혼합을 낳았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봉건제 · 교회-국가 · 샤리아 · 과거제 · 쇼엔·막부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서임권 투쟁, 십자군, 송 상업 혁명, 가마쿠라 막부	교황·황제·율라마·사대부·무사	중세는 유럽의 암흑기이고 아시아의 정체기다.	지역별로 도시·상업·학문·국가 형성의 활발한 변화가 있었다.	법적 다원성과 종교-국가 관계의 기원을 본다.

06

근세와 조기근대

1500 년 전후 세계의 국가·시장·군사·인쇄 확대

6.1 유럽의 르네상스·종교개혁·국가경쟁

르네상스는 고전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경쟁, 상업 부, 후원, 인문주의 교육과 인쇄가 결합한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와 재산, 국가주권, 교육, 문해, 전쟁을 재편했다. 가톨릭 개혁도 수도회·교육·선교를 통해 대응했다.

화약전쟁과 상비군, 요새, 해군, 국채와 조세는 “재정-군사국가”를 성장시켰다. 국가경쟁은 혁신을 촉진했지만 전쟁·박해·강제징수의 비용도 키웠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의회·금융은 중요한 경로였으나 프랑스·스페인의 왕권도 강력했다.

6.2 명청 중국·조선·에도 일본

명청 중국은 황제권과 관료제를 유지하면서 은경제, 강남 상업, 수공업, 출판과 지역 엘리트가 크게 성장했다. 국가는 모든 경제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사회와 상인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18 세기 청은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한 다민족 제국이었다.

조선은 성리학적 왕조국가로서 과거제와 양반관료, 향촌질서, 족보·종법, 토지와 노비제도를 발전시켰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은 군사와 재정, 국제질서를 재편했다. 에도 일본은 막부와 번이 권력을 나누고, 산킨코타이와 성곽도시, 상업·출판·교육이 성장한 “분권적 통합국가”였다.

6.3 무굴·오스만·사파비

오스만·사파비·무굴은 흔히 “화약제국”으로 불리며, 화기·기병·토지세·궁정문화·다종교 통치를 결합했다. 오스만은 술탄, 관료, 예니체리, 울라마, 밀레트와 지방권력의 균형 속에서 운영되었다. 무굴은 만사브다리와 지대징수, 페르시아 문화와 인도 지역사회를 결합했다. 이들은 유럽보다 뒤쳐진 제국이 아니라 16-17 세기 세계의 중심적 군사·상업 세력이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조기근대 · 재정-군사국가 · 은경제 · 분권적 통합 · 화약제국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종교개혁, 30 년전쟁, 명청교체, 에도막부, 오스만 팽창	루터, 엘리자베스 1 세, 강희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르바르	1500 년 이후 서양만 역동적이었다.	아시아 제국과 시장도 팽창했으며 변화의 방향이 달랐다.	현대 국가역량과 시장의 역사적 결합을 이해한다.

07

권력 분산과 중앙집권

서유럽의 다중 중심과 동아시아 관료국가의 장기지속 조건

7.1 서유럽에서 권력이 분산된 이유

6. 로마제국 붕괴로 단일한 행정·군사 중심이 사라지고, 게르만 왕국·귀족·교회가 권력을 분점했다.
 7. 교회가 독자적 토지·법·인사체계를 보유하여 왕권과 별도의 보편 권위를 형성했다.
 8. 성곽과 기병, 지방 토지수입에 기반한 귀족이 왕의 군사력을 제약했다.
 9. 도시와 상인이 자치헌장·길드·법원을 획득하고 조세와 신용을 매개로 왕과 협상했다.
 10. 왕조경쟁과 국제전쟁이 국가를 강화하면서도 의회·귀족·채권자와의 협상 필요성을 높였다.
- 이 구조는 자동으로 자유주의를 낳지 않았다. 귀족의 특권과 도시의 배타성, 농민의 종속, 종교전쟁도 함께 존재했다. 권력분산은 권리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내전과 국가취약성을 낳기도 했다.

7.2 동아시아에서 중앙집권 관료국가가 재건된 조건

11. 한자 문서문화와 고전 교육이 넓은 지역의 행정 표준과 엘리트 공통문화를 제공했다.
 12. 군현·호적·조세·창고·도로와 운하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했다.
 13. 과거제와 관료 경력은 세습 귀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중앙국가가 엘리트층을 흡수하는 통로가 되었다.
 14. 유교의 천명·민본·의례는 황제권을 정당화하면서도 도덕적 통치와 간쟁의 규범을 제공했다.
 15. 북방 유목세력과 내부 반란에 대한 대규모 동원이 통일왕조의 군사·재정 필요를 강화했다.
- 그러나 중국 제국의 중앙권력은 현대 관료국가처럼 사회 곳곳을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 현 아래의 지역사회는 향신·종족·상인·사원과 비공식 관행에 크게 의존했다. 황제의 이념적 권위와 지방의 실제 자율성이 공존했다.

7.3 예외와 교차 사례

사례	왜 단순 이분법을 깨는가			
비잔틴·러시아	정교회와 황제·차르, 관료·군사체제가 강한 중앙집권을 형성했다.			
프랑스 절대왕정	귀족을 궁정과 관료체제에 통합하며 강한 왕권을 구축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귀족의 자유와 선거왕정이 중앙권력을 약화했다.			
에도 일본	막부와 번, 무사와 상인도시가 공존한 분권적 통합체제였다.			
인도·동남아	다중 중심·지역왕국·만달라적 권력이 장기간 병존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다중 권력 중심 · 관료제 · 과거제 · 재정·군사국가 · 지방 엘리트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서임권 투쟁, 진한 통일, 송과 거제, 프랑스 절대왕정	교황·왕·귀족·사대부·향신	서양은 늘 자유롭고 분권적, 동양은 늘 전제적이다.	권력형태는 시대·지역·전쟁·행정기술에 따라 변했다.	중앙집권과 자유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평가하지 않게 한다.

08

지역별 “동양”의 다섯 경로

중국·일본·한국·인도·이슬람 세계를 분리하여 본다

“동양” 내부의 다섯 가지 정치·사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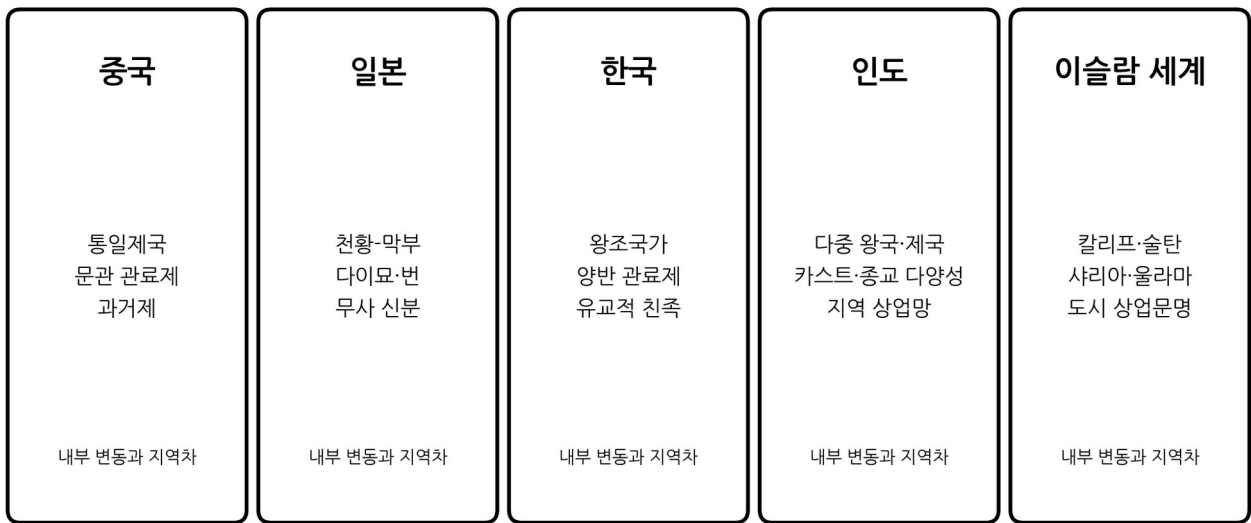


그림 3. 동양 내부에는 서로 다른 정치·사회·종교적 발전 경로가 존재한다.

8.1 중국: 통일제국과 문관 관료제

중국의 장기적 특징은 통일 그 자체보다 붕괴 뒤에도 통일왕조가 정당한 질서로 반복 재건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한 개방성을 제공했지만 교육·토지·가문 자원이 필요해 엘리트 재생산과 결합했다. 황제권은 이론상 절대적이었으나 관료의 정보, 지방 엘리트의 협력, 재정과 교통의 제약을 받았다.

8.2 일본: 천황·막부·다이묘의 이중성과 분권

일본은 천황의 의례적 정통성과 무사정권의 실권이 병존했다. 가마쿠라·무로마치·에도 막부는 지역 영주와 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통치했다. 에도기의 번은 자체 재정·법·교육을 가졌고, 전국적 시장과 산킨코타이는 통합을 촉진했다. 이 구조는 메이지유신 때 번의 자원을 중앙국가로 흡수하는 기반이 되었다.

8.3 한국: 왕조국가와 양반·성리학적 친족

고려는 문벌귀족·불교·무신정권·몽골과의 관계를 경험했고, 조선은 성리학과 과거제를 강화해 문관 중심 왕조를 만들었다. 양반은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단일 신분이라기보다 관직·학문·가문·향촌권력을 결합한 엘리트였다. 후기에는 족보와 종법, 적장자 중심 상속, 서열 차별이 강화되었지만 시장·신분 이동·실학과 농민운동도 확대되었다.

8.4 인도: 카스트, 종교 다양성, 지역국가와 제국

카스트는 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조였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정 체계가 아니었다. 바르나의 규범과 수많은 자티의 지역적 직업·혼인 네트워크가 달랐고, 왕조·사원·상인·농민관계에 따라 변화했다. 마우리아·굽타·델리 술탄국·무굴 같은 제국과 지역왕국이 교대했으며, 힌두·불교·자이나·이슬람·시크 전통이 경쟁하고 혼합했다.

8.5 이슬람 세계: 칼리프·술탄·울라마·도시 상업

이슬람 정치사에서 칼리프의 종교적 상징과 술탄·아미르의 군사권력, 울라마의 법 해석, 상인과 도시의 자율적 네트워크가 공존했다. 샤리아는 국가가 만든 단일 법전이 아니라 꾸란·하디스·법학파의 해석과 재판·관행의 복합체였다. 와크프는 교육·복지·종교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통일왕조 · 막부·번 · 양반 · 자티·바르나 · 샤리아·울라마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진한·송, 예도, 조선, 무굴, 아바스·오스만	사대부, 다이묘, 양반, 브라만·상인, 울라마	동양은 하나의 유교적 농업문명이다.	인도와 이슬람, 일본의 제도는 중국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시아 정책·투자·외교에서 국가별 역사적 제약을 구분하게 한다.

09

법·재산·신분·가족

권리와 의무, 자유와 질서를 조직한 제도

9.1 법: 권리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

서양 법의 계보에는 로마법, 게르만 관습법, 교회법, 봉건법, 왕실법, 도시법이 중첩되었다. 중세 대학의 법학과 법원 경쟁은 법적 전문성을 키웠고, 자연법·사회계약·혁명권은 권리를 보편적 개인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그러나 실제 시민 권은 오랫동안 재산·성별·인종에 의해 제한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율령·법전은 형벌과 행정, 가족질서와 신분을 조직했다. 유교적 통치가 예를 강조했다고 해서 법이 약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적 권리의 독립적 법원 구제보다 행정적 조정과 국가질서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다. 일본은 막부·번의 법과 촌락·상인 관행이 병존했다.

이슬람 법학은 계약·상속·혼인·시장·기부를 정교하게 다뤘으며, 카디 법정과 법학자들이 국가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다르마 규범, 왕법, 지역 관습, 이슬람 법, 식민지 영국법이 중첩되었다.

9.2 재산권과 경제활동

재산권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자산을 보유·상속·담보·매매할 수 있고 국가나 공동체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의 문제다. 서유럽의 사유재산과 계약도 봉건적 권리·공동지·길드 규제를 포함했다. 중국의 토지매매와 전당, 상속은 활발했지만 국가의 토지·세금 규정과 가족 공동재산이 중요했다. 이슬람법은 여성의 상속분과 독립재산을 인정했지만 가부장적 현실과 지역관행이 제한했다.

9.3 신분·가족·여성

영역	서양의 대표 경향	동양·비서구의 대표 경향	주의점
가족	기독교의 일부일체·근친혼 금지, 핵가족 비중 확대	중국·한국의 부계 종족, 일본의 이에, 인도의 친족·카스트	실제 가족형태는 계층·지역·생태에 따라 다양
상속	장자상속과 분할상속이 지역별로 공존	중국의 아들 균분 경향, 조선 후기 적장자 중심 강화, 이슬람의 정해진 상속분	법과 현실, 여성 지참금·혼수의 역할 구분
여성	법적 종속과 종교·도시·시장 참여의 병존	유교적 내외 규범, 인도의 가부장제, 이슬람법의 재산권, 일본 여성의 가문 역할	“서양 여성은 자유, 동양 여성은 억압”은 시대착오
신분	귀족·성직자·시민·농노·노예	양반·사농공상·노비, 무사·농민·상인, 카스트, 노예·예속민	신분제는 모든 지역에서 변동·협상·위장이 존재

장 요약 - 핵심 개념

법적 다원성 · 재산권 · 신분제 · 친족제도 · 젠더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로마법 수용, 조선 경국대전, 샤리아 법학, 식민법	법학자·관료·가장·여성 상인	서양에는 개인권, 동양에는 공동체 의무만 있었다.	권리와 의무는 모든 지역에서 계층·성별·신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	현대 가족법·기업법·재산분쟁의 문화적·제도적 배경을 본다.

10

종교·철학·인간관

개인·공동체·국가·자유·질서에 대한 복수의 전통

10.1 그리스 철학·로마법·기독교·자연법

그리스 철학은 이성적 탐구, 덕, 좋은 삶, 정치공동체를 논의했지만 개인주의 철학만은 아니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와 위계, 시민적 덕을 중시했다. 스토아주의와 로마법은 보편적 인간성과 자연법의 언어를 발전시켰다. 기독교는 영혼의 평등과 보편적 구원을 주장했지만 교회 위계와 정치권력, 가부장제와 결합했다. 종교개혁·자연법·계몽주의·혁명은 양심·권리·주권을 새로운 개인과 국민의 언어로 바꾸었다.

10.2 유교·도교·불교

유교는 인간을 관계 속의 도덕적 주체로 보며, 수양·효·예·의·민본·덕치를 강조했다. 이는 무조건적 복종만을 뜻하지 않았다. 군주는 도덕적 의무를 지며, 천명은 폭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도교는 인위적 권력과 욕망을 비판하고 자연스러운 삶과 유연성을 중시했다. 불교는 무상·연기·자비·해탈을 통해 신분과 자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했지만 국가·사원·왕권과 결합하기도 했다.

10.3 힌두교·이슬람

힌두 전통은 다르마·카르마·윤회·해탈, 신에 대한 다양한 신앙과 철학을 포괄한다. 다르마는 역할과 의무를 정당화했지만 바크티 운동은 신 앞의 헌신과 접근성을 확장했다. 이슬람은 유일신, 공동체, 자선, 계약, 정의와 법을 결합했다. 개인은 신 앞의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움마와 가족, 법학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구성되었다.

10.4 자유와 공동체의 잘못된 대립

비교의 핵심

서양의 자유주의는 그리스·기독교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종교전쟁, 상업사회, 국가권력, 혁명, 식민지와 노예제에 대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공동체 윤리도 고정된 복종문화가 아니라 가족·관료·시장·민족주의·사회주의와 결합하며 변형되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자연법 · 자유주의 · 유교적 관계윤리 · 다르마 · 움마·샤리아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종교개혁, 계몽주의, 신유학, 바크티, 이슬람 법학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로크, 공자, 주희, 붓다, 이븐 루시드	서양은 개인, 동양은 공동체만 중시한다.	모든 전통은 개인과 공동체,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다뤘다.	인권·기업문화·교육·시민윤리의 차이를 역사적으로 해석한다.

11

도시·상업·금융·지식

시장과 과학기술은 국가·공동체·제국과 함께 발전했다

11.1 도시와 농촌

중세 서유럽의 일부 도시는 자치헌장, 길드, 법원, 민병대를 확보해 농촌 봉건질서와 다른 정치공간을 만들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한자동맹은 상업과 외교를 결합했다. 그러나 다수 도시는 왕과 귀족의 통제 아래 있었고, 도시민도 소수였다.

중국의 장안·개봉·항저우·소주, 이슬람의 바그다드·카이로·이스탄불, 인도의 델리·아그라·수라트, 일본의 오사카에 도는 거대한 소비·생산·유통 중심지였다. 이 도시들이 유럽 도시처럼 정치적 자치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적 역동성이 약했던 것은 아니다.

11.2 상업과 금융

환어음, 파트너십, 보험, 국채, 은행은 유럽의 장거리무역과 국가재정을 결합했다. 중국의 전장·표호, 상인회관, 전당과 은경제, 이슬람의 무다라바와 수크, 인도의 환어음인 훈디, 일본의 오사카 쌀시장과 상인신용도 복잡한 금융을 발전시켰다. 차이는 금융의 존재 여부보다 국가채무, 법인, 공개시장, 식민제국과 산업투자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있다.

11.3 교육과 지식인 계층

유럽 대학은 신학·법·의학을 가르치는 법인적 공동체로 발전했고, 인쇄·학회·공화국적 서신망은 지식의 검증과 확산을 강화했다. 중국의 과거제와 서원, 조선의 성균관·향교·서원, 이슬람의 마드라사, 인도의 사원·마드라사·궁정 학문도 엘리트 지식체계를 형성했다. 시험문화는 넓은 문해와 출판을 촉진했지만 고전 해석에 자원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11.4 과학기술의 이동

종이·인쇄·화약·나침반은 중국에서 발전해 유라시아로 확산했고, 인도 수학과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 천문·의학·광학은 유럽 지식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근대 과학은 유럽 내부의 독립적 창조라기보다 번역·관측·항해·제국 정보와 결합한 세계적 지식의 재조직이었다. 다만 실험, 수학화, 학회, 특허, 산업자본과 국가경쟁이 서유럽에서 독특한 제도적 결합을 형성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도시 자치 · 상인 네트워크 · 신용 · 대학·과거제 · 지식 이동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송 상업화, 한자동맹, 이슬람 번역운동, 과학혁명	상인·길드·사대부·울라마·학자	동양은 농업만 중시해 상업과 과학이 없었다.	아시아에는 강한 시장과 기술이 있었으며 제도적 연결 방식이 달랐다.	금융혁신과 지식생태계의 조건을 비교한다.

12

대분기와 산업혁명

왜 서유럽에서 먼저 발생했는가에 대한 경쟁 설명

왜 산업혁명은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 - 경쟁하는 설명들

설명 틀	핵심 변수	강점	한계
제도론	재산권·의회·법치·시장	장기 인센티브를 설명	제도 자체의 기원과 제국·식민 관계를 축소
지리론	석탄·항로·질병·생태	물질적 제약을 분명히 함	지리결정론 위험
문화론	과학문화·종교·합리화	지식과 규범의 역할 강조	문화 내부의 다양성과 변화 과소평가
경제론	임금·에너지 가격·시장 규모	산업혁명의 수익성 설명	정치·전쟁·식민지의 효과를 독립변수로 보기 어려움
식민주의론	노예·플랜테이션·은·시장	유럽 성장의 외부 자원 연결을 포착	유럽 내부 혁신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세계체제론	중심·주변·불평등 교환	전지구적 구조를 통합	지역 행위자와 제도 차이를 평면화
대분기론	18세기까지 유라시아의 유사성	서구 우월론을 교정	지역별 시점과 지표에 따라 논쟁 지속

그림 4. 산업혁명과 대분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다른 층위를 포착한다.

12.1 제도론

재산권, 계약 집행, 의회, 제한된 정부, 특허, 법인과 금융시장이 투자와 혁신의 인센티브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국채시장이 대표 사례로 제시된다. 장점은 장기적 투자와 정치적 신뢰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한계는 제도가 경제성장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식민지·노예제와 배타적 권리가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2 지리·에너지·경제론

영국의 풍부하고 접근 가능한 석탄, 항구와 내륙수로, 높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싼 에너지가 노동절약형 기계의 수익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농업생산성, 식량가격, 시장통합도 중요했다. 이 설명은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정 가격구조에서 채택되는 경제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그러한 가격과 시장이 형성되었는지는 정치·제국·무역과 연결해야 한다.

12.3 문화·과학론

과학혁명, 계몽주의, 유용한 지식의 가치, 장인과 학자의 교류, 실험과 공개검증의 규범이 혁신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대학과 학회, 인쇄시장, 종교적 경쟁은 지식의 다양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럽 문화가 본래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은 그리스·이슬람·중국·인도 지식의 기여와 유럽 내부의 미신·검열을 무시한다.

12.4 식민주의·노예무역·세계체제론

아메리카의 토지·은·설탕·면화, 아프리카 노예노동, 인도와 중국의 시장과 상품은 유럽의 자본축적·소비혁명·재정·산업원료를 지원했다. 식민지 경쟁은 해군·보험·금융·국가채무를 확장했다. 이 접근은 유럽 발전의 외부비용과 폭력을 드러낸다. 다만 모든 산업기술을 식민지 이익으로 직접 환원하면 지역적 발명·숙련·제도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12.5 대분기 논쟁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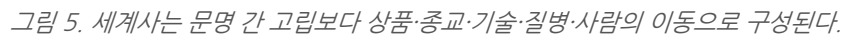
대분기 연구는 18세기까지 중국 장강 하류, 일본 일부, 인도 섬유지역이 유럽의 선진지역과 상당한 시장화·생활수준·기술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분기는 18세기 후반 이후 석탄과 아메리카 자원, 산업기술, 군사·제국의 결합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론은 임금, 출산, 도시화, 과학제도, 자본시장 등의 격차가 더 일찍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유럽의 오래된 필연적 우월성’도, ‘산업혁명은 오직 식민지의 산물’도 아니라 다중 원인의 역사적 결합이라는 것이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대분기 · 제도론 · 고임금 경제 · 석탄 · 식민주의·세계체제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명예혁명, 과학혁명, 대서양 노예무역, 산업혁명	와트, 뉴턴, 상인·노예·식민지 노동자	서양의 문화적 우월성이 산업혁명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제도·에너지·지식·제국·세계시장의 결합을 봐야 한다.	기술패권과 경제성장의 비용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동서 교류의 네트워크 - 경계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KOREABEST.ORG · AMERICANNEWSPAPER.ORG | 22

13.4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19 세기 산업·군사·금융 우위는 인도 식민통치, 중국의 조약항, 아프리카 분할, 오스만 압박, 일본 제국주의로 이어졌다. 식민지는 원료와 시장을 제공했지만 철도·법·학교·통계·국민국가의 도구도 남겼다. 피지배사회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민족주의·사회주의·종교개혁으로 재구성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 제국질서를 붕괴시키고 미국·소련·탈식민 국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실크로드 · 인도양 · 콜럼버스 교환 · 노예무역 · 제국주의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몽골패스, 마닐라 갈레온, 아편전쟁, 세계대전	상인·선교사·노예·식민지 지식인	문명은 독립적으로 발전한 뒤 충돌했다.	상호교류는 문명 내부의 발전 자체를 구성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패권경쟁의 역사적 뿌리를 본다.

14

19세기 비서구의 대응

서구의 군사·산업·법·교육·국민국가 모델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다

19-20세기 비서구 사회의 대응: 모방이 아니라 선택적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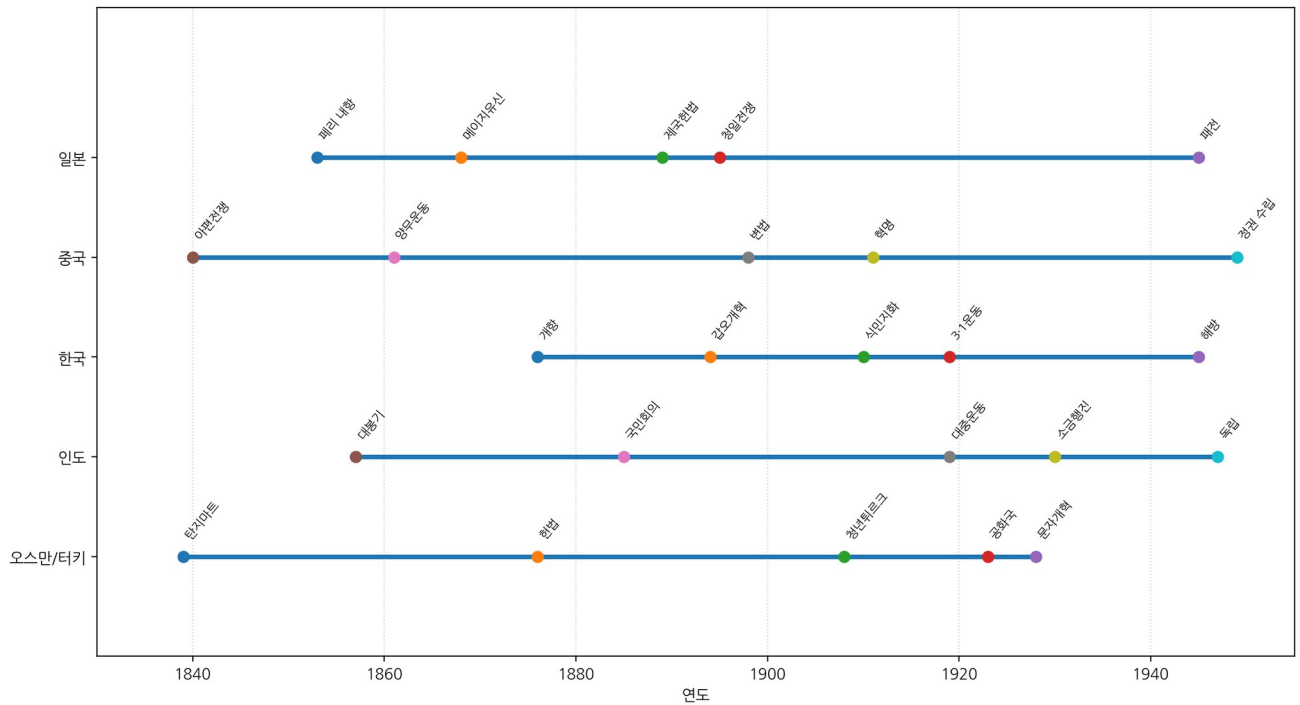


그림 6. 근대화는 단일한 서구화가 아니라 개혁·혁명·식민지·민족주의의 다양한 조합이었다.

14.1 일본: 메이지유신

메이지유신은 “전통을 버리고 서구화한 사건”이라기보다 막부·번의 인적·재정 자원, 사무라이 엘리트, 상업경제를 중앙국가에 재편한 정치혁명이었다. 징병, 토지세, 학교, 철도, 산업정책, 헌법과 의회를 도입했지만 천황제와 관료·군부의 권위도 강화했다. 일본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고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으며, 조선·대만·중국에 식민지 폭력을 행사했다.

14.2 중국: 양무운동에서 혁명과 국가재건으로

양무운동은 “중체서용” 아래 군수공장·조선소·학교·외교를 도입했으나 중앙·지방 분열, 재정, 제국주의 압력의 제약을 받았다. 변법자강운동과 신정은 헌정·교육·군제개혁을 추진했고, 1911년 혁명은 왕조를 끝냈다. 이후 군벌, 국민당, 공산당은 국가통일·토지·산업·민족주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14.3 한국: 개항·개혁·식민지·분단

조선은 개항 이후 청·일·러시아와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통리기무아문, 갑오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은 왕권 강화, 신분제 폐지, 군제·재정·교육의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국제경쟁과 국내 갈등, 일본의 침략으로 제한되었다. 식민지 지배는 인프라와 공업화를 제국의 필요에 맞게 조직하고 정치적 억압·토지와 노동의 수탈·문화적 동화를 병행했다. 독립운동은 공화주의·민족주의·사회주의·외교·무장투쟁으로 다양했다.

14.4 인도: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영국은 동인도회사와 식민정부를 통해 토지세, 법원, 철도, 영어교육, 인구조사를 도입했다. 이는 시장 통합과 새로운 중간계층을 만들었지만 산업구조 왜곡, 기근, 인종적 지배와 경제적 이전을 낳았다. 국민회의, 간디의 비폭력 대중운동, 노동·농민·혁명운동, 무슬림 정치가 결합·경쟁했고, 독립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과 폭력을 동반했다.

14.5 오스만·터키: 탄지마트와 공화국 개혁

오스만의 탄지마트는 군대·세금·법·교육·시민권을 재편하고 비무슬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려 했다. 청년튀르크 혁명과 세계대전, 제국 붕괴 뒤 무스타파 케말은 공화국, 세속법, 문자개혁, 교육·복식·국가주의를 추진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었지만 쿠르드·아르메니아 문제와 권위주의적 동질화의 유산도 남겼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선택적 근대화 · 국민국가 · 식민지 근대성 · 민족주의 · 개발국가의 전사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메이지유신, 양무운동, 갑오개혁, 인도독립, 터키공화국	이토 히로부미, 쏜원, 김옥균·독립운동가, 간디, 아타튀르크	근대화는 서구제도를 복사하면 성공한다.	각 사회는 기존 엘리트·제국압력·국내 갈등 속에서 제도를 재구성했다.	개혁과 권위주의, 성장과 제국주의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20 세기 이후의 재구성

민주주의·공산주의·개발국가·냉전·세계화·정보혁명

15.1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화

민주주의는 서양의 독점물이 아니라 참정권 확대, 노동운동, 여성운동, 반식민 투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공산주의는 유럽 산업사회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러시아·중국·베트남에서는 농민혁명·민족해방·국가건설의 이념이 되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지역의 역사적 요구에 맞게 변형되었다.

15.2 개발국가와 동아시아 산업화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 한국·대만의 수출주도 산업화, 중국의 개혁개방은 강한 관료, 교육, 토지개혁, 금융통제, 기업 정책, 세계시장 접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했다. 이는 “유교가 자본주의를 막는다”는 과거 주장을 뒤집었지만, 유교가 자동으로 성장을 만든다는 반대의 문화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지정학적 안보, 미국시장, 냉전 원조, 국내 계급관계와 정책능력이 중요했다.

15.3 탈식민화와 중동·남아시아

탈식민 국가는 식민지 국경·관료·군대·법을 상속한 채 민족통합과 개발을 추진했다. 인도는 민주주의와 계획경제를 결합했고, 중동에서는 군부공화국·왕정·석유국가·이슬람운동이 경쟁했다. 냉전과 외부개입, 팔레스타인 문제, 석유 경제는 국가형성과 권위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15.4 세계화와 정보혁명

20 세기 후반의 공급망·금융·이민·인터넷은 제도와 생활양식을 수렴시켰지만 새로운 차이도 만들었다. 미국식 기업·대학·법률 모델이 확산되는 동시에 중국의 당-국가 시장경제, 유럽의 사회적 시장과 초국가 통합, 한국·일본의 기업 집단과 관료 전통, 인도의 민주주의·디지털 국가, 걸프의 왕정·글로벌 자본이 서로 다른 근대성을 보여준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민주주의의 확산 · 공산주의 · 개발국가 · 탈식민화 · 정보혁명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냉전, 한국 산업화, 개혁개방	노동자·농민·관료·기업·시민운동	현대화가 진행되면 모든 사회가 같은 제도로 수렴한다.	세계화는 수렴과 경로의존을 동시에 강화했다.	현재의 정치경제 모델을 전통 대 현대의 단순 대립으로 보지 않게 한다.

16

역사해석의 주요 이론

유럽중심주의·오리엔탈리즘·아시아적 생산양식·근대화론·세계체제론·대분기·다중근대성

16.1 유럽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

유럽중심주의는 유럽의 경험을 보편적 기준과 역사 발전의 정상 경로로 놓는다. 장점이라기보다 분석의 출발점이었던 유럽사 자료와 개념을 체계화했다는 점은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의 기여와 식민폭력을 주변화한다.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동양 지식이 권력과 제국 통치에 결합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동양학 연구를 단순한 지배담론으로 환원하면 현지 학자·텍스트·상호 번역의 복잡성을 놓칠 수 있다.

16.2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근대화론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공동체적 토지, 관개, 전제국가, 정체성을 연결하려는 개념이다. 대규모 국가와 농촌공동체의 관계를 문제화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인도·중동의 시장·사유재산·지역차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식민지 시대의 편견을 반복했다. 근대화론은 산업화·도시화·교육·정치참여의 연계를 설명했으나 서구 경로를 단선적 표준으로 삼고 식민주의·전쟁·외부의존을 과소평가했다.

16.3 세계체제론

세계체제론은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중심·반주변·주변의 분업과 불평등 교환을 만들었다고 본다. 장점은 국가 내부의 발전을 세계시장과 제국에 연결한다는 점이다. 한계는 지역 국가의 제도능력, 문화, 행위자의 전략, 동아시아와 인도양의 선행 네트워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16.4 대분기 논쟁

대분기론은 유라시아의 선진지역을 대칭적으로 비교하고 유럽의 우위를 오래된 문화적 필연이 아니라 18-19세기의 분기로 본다. 장점은 중국·인도 시장과 생활수준을 재평가하고 석탄·신대륙·제국을 통합한 것이다. 한계는 비교 지표와 지역 선택, 제도의 장기효과, 과학·국가경쟁의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크다는 점이다.

16.5 다중근대성

다중근대성은 산업화·국민국가·대중정치·관료화가 공통적으로 확산되더라도 종교, 시민권, 가족, 국가-시장 관계가 여러 형태로 구성된다고 본다. 현대 중국, 일본, 인도, 이슬람권을 서구의 미완성 복제본이 아니라 독자적 조합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문화상대주의로 흐르면 권력·자본·제국의 공통 구조를 놓칠 수 있다.

이론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주요 한계
유럽중심주의	유럽 내부의 제도·사상 계보	외부 기여와 식민폭력의 주변화
오리엔탈리즘	지식·표상·제국권력의 결합	현지 행위자와 사실 연구를 과도하게 담론화할 위험
아시아적 생산양식	국가·농촌·수리·토지의 관계	아시아 내부 다양성과 시장을 평면화
근대화론	산업화·도시화·교육의 상관관계	서구 단선모델과 목적론
세계체제론	중심·주변 구조와 전지구적 불평등	국가·지역·문화의 자율성 축소
대분기론	유라시아 선진지역의 대칭 비교	지표·시점·지역선택 논쟁

이론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주요 한계		
다중근대성	현대 제도의 다양한 조합	구조적 권력과 자본의 공통성을 약화할 위험		
장 요약 - 핵심 개념 유럽중심주의 · 오리엔탈리즘 · 아시아적 생산양식 · 세계체제 · 대분기 · 다중근대성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식민지 학문, 냉전 발전론, 글로벌 히스토리의 부상	마르크스, 베버, 사이드, 월러스틴, 포메란츠, 아이젠슈타트	하나의 이론이 동서 차이를 완전히 설명한다.	이론은 질문별 도구이며 범위와 증거에 따라 조합해야 한다.	정책 담론의 문명론·발전단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7

영역별 종합 비교

핵심 차이·공통점·내부 다양성·상호영향

영역별 비교: 차이·공통점·상호영향을 한 화면에 보기

영역	서양의 대표 경로	동아시아의 대표 경로	공통점·상호영향
정치	복수 권력 중심, 의회·도시·귀족	왕조·문관 관료제, 중앙·지방 행정	제국·전쟁·조세국가 형성
법률	로마법·교회법·관습법·권리 담론	율령·성문법·행정적 법집행·의례	계약·재산·형벌·국가질서
경제	도시 상업·금융·산업자본주의	농업국가와 강한 시장·상인 네트워크	장거리 무역·화폐·신용
사회	신분제에서 시민사회·계급사회로	가족·종족·신분과 관료 엘리트	불평등·이동·교육 경쟁
사상	그리스 철학·기독교·자연법·자유주의	유교·불교·도교·법가	윤리·정당성·공동체 질서
과학기술	대학·학회·특허·산업연계	국가 기술·실용지식·출판·시험문화	유라시아 지식 이전
국제관계	주권국가·세력균형·식민제국	조공·책봉·다중 중심 질서	외교·교역·전쟁·번역

그림 7. 영역별 비교는 차이뿐 아니라 공통과 상호영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17.1 종합 비교표

영역	서양의 대표 경로	동양·비서구의 대표 경로	내부 다양성	상호영향
정치	왕권·교회·귀족·도시·의회와 다중 중심; 근대 주권국가	중국·한국의 왕조·관료제, 일본의 막부·번, 인도·이슬람의 다중국가	비잔틴·러시아·절대왕정은 중앙 집권; 일본·인도는 분권 사례	전쟁·헌법·관료제·민족주의 모델의 이동
경제	도시상업·대서양 무역·금융·산업 자본주의	농업세 기반 국가와 강한 지역·장거리 시장, 상인 네트워크	모든 지역에 토지·상업·화폐·신용의 혼합	은·면직물·차·향신료·노예·자본의 세계적 순환
사회	귀족·성직자·농민·시민에서 계급·시민사회로	사대부·양반·무사·카스트·울라마·상인·농민	신분 이동과 배제, 교육을 통한 엘리트 재생산 공통	식민지 교육·민족주의·노동운동의 확산
사상	그리스·로마·기독교·자연법·계몽·자유주의	유교·도교·불교·힌두·이슬람의 관계윤리·법·구원론	각 전통 내부에 권위와 비판,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	번역·선교·개혁·사회주의·인권 담론의 혼합
종교	교회 제도와 국가의 분리·경쟁, 종교개혁과 세속화	국가제도의 유교, 불교 사원, 힌두 사원, 이슬람 울라마·와크프	종교는 정당성과 복지·교육·저항 모두에 관여	세계종교의 이동과 토착화
법률	로마법·교회법·관습법·보통법·권리헌정	율령·법전·행정법, 샤리아, 다르마·관습, 막부·번 법	법적 다양성과 신분별 차별이 공통	식민법·헌법·상법·국제법의 수용

영역	서양의 대표 경로	동양·비서구의 대표 경로	내부 다양성	상호영향
과학기술	대학·학회·특허·산업과 결합한 근대과학	중국·인도·이슬람의 수학·천문·의학·기술, 동아시아의 인쇄·시험문화	실용지식과 장인기술은 보편적	종이·숫자·화학·항해·의학의 유라시아 이동
국제관계	주권국가·세력균형·식민제국·국제법	조공·책봉, 유목·농경 관계, 인도양·이슬람 네트워크, 제국질서	전쟁·외교·혼인·무역·종교의 혼합	제국주의와 탈식민화 뒤 세계기구·냉전·세계화

17.2 가장 중요한 공통점

- 국가는 세금·전쟁·법·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 가족과 상속은 재산과 신분을 세대 간 이전하는 핵심 제도였다.
- 종교는 권력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권력을 비판하는 윤리와 조직을 제공했다.
- 상업과 도시는 농업국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국가와 긴장·협력했다.
- 지식은 번역·여행·전쟁·선교·상업을 통해 이동했으며 어느 문명도 순수하게 자족적이지 않았다.

17.3 가장 중요한 차이

- 서유럽의 장기적 복수 권력 중심과 동아시아의 통일왕조 재건 전통.
- 법원·법인·도시·의회가 독자적 권리를 축적한 경로와, 관료행정·가족·지역 엘리트가 국가와 결합한 경로.
- 근대 과학·산업·금융이 군사경쟁·대서양 제국과 결합한 시점과 규모.
- 친족·상속·엘리트 선발의 제도적 차이.
- 19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비서구의 국가형성과 근대화를 외부 충격으로 강제했다는 비대칭.

장 요약 - 핵심 개념

종합비교 · 경로의존 · 공통문제 · 내부 다양성 · 상호영향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로마·한, 송·중세유럽, 산업혁명, 탈식민화	국가·상인·종교인·농민·노동자	차이표는 문명의 고정된 속성을 보여준다.	비교표는 대표 경로와 예외, 변화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국가별 전략을 문화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제도 조합으로 본다.

18

오늘날 세계에 주는 의미

미국·유럽·중국·한국·일본·인도·중동의 제도와 갈등을 역사적으로 읽기

18.1 미국과 유럽

미국의 헌정주의, 연방제, 재산권, 종교의 자유, 시민사회는 영국법·계몽주의·식민지 자치의 유산을 갖지만 노예제, 원주민 정복, 이민, 대기업과 세계패권의 역사도 함께 구성한다. 유럽연합은 주권국가와 초국가 법, 복지국가와 시장 통합을 결합한 새로운 실험이며, 동유럽과 러시아의 국가·제국 경험은 서유럽과 다르다.

18.2 중국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전통 황제국가의 단순 부활이 아니다. 공산혁명, 레닌주의 조직, 토지혁명, 계획경제, 개혁개방과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 현대적 체제다. 다만 광역 통일, 관료선발, 중앙-지방 조정, 국가가 사회질서와 발전을 책임진다는 기대에는 장기적 역사경험이 영향을 준다.

18.3 한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관료·교육 전통, 식민지 국가기구, 분단과 전쟁, 미국 동맹, 개발독재, 민주화와 재벌경제가 결합했다. 일본은 막부·번의 지역조직, 메이지 중앙국가와 제국, 전후 헌법·미국동맹·기업사회가 중첩된다. 두 나라의 높은 교육경쟁과 관료·기업 중심성은 유교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산업화·냉전·토지개혁·인구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18.4 인도

인도는 식민지 법·관료·철도·영어, 국민운동과 연방헌법, 카스트·종교·언어 다양성을 결합한 대규모 민주주의다. 디지털 국가와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농촌·비공식경제·지역정당·종교민족주의가 강하다. 이는 “전통이 근대를 방해한다”는 모델보다 다중 제도층의 공존으로 이해해야 한다.

18.5 중동

중동의 국가들은 오스만 행정, 식민지 국경, 왕정·군부공화국, 석유경제, 이슬람 법과 세속법, 냉전·외부개입을 서로 다르게 결합했다. 권위주의를 이슬람 문화만으로 설명하면 식민지 국가형성, 자원수입, 군사·안보체제, 국제정치를 놓친다. 시민사회·상업·종교기관의 자율성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18.6 실용적 평가 원칙

16. 현재의 제도를 고대 전통의 직접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17. 국가·시장·가족·종교·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는지 본다.
18. 식민지·전쟁·냉전·세계시장이라는 외부 충격을 포함한다.
19. 국가 내부의 지역·계층·세대·성별 차이를 확인한다.
20. 역사적 유산은 제약이지만 정치적 선택과 개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역사적 유산 · 경로의존 · 혼합체제 · 국가역량 · 다중근대성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미국 건국·노예제, 중국혁명·개혁개방, 한국 민주화, 인도 헌정, 중동 탈식민화	정치가·관료·기업·시민사회	오늘의 국가문화는 수천 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현대 체제는 전통·제국·전쟁·혁명·세계시장의 혼합물이다.	투자·외교·정책 분석에서 문화적 고정관념을 줄인다.

19

결론과 연구 질문

서양사와 동양사의 차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19.1 최종 결론

서양사의 대표적 경로는 로마제국 해체 이후 왕권·교회·귀족·도시·법원의 경쟁, 법적 다원성, 대서양 제국과 국가경쟁, 과학·금융·산업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경로는 통일왕조의 재건, 문관 관료제와 과거, 가족·지역 엘리트의 국가 결합, 농업세와 강한 시장, 19세기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주도 근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대표 경로일 뿐이다. 일본은 막부·번의 분권, 인도는 카스트·종교·지역국가의 다양성, 이슬람 세계는 법학자·상인·도시·술탄의 다중 권력, 러시아와 비잔틴은 강한 중앙집권이라는 교차 사례를 제공한다.

근대 서유럽의 선행은 제도·지리·문화·경제·식민지·세계체제 요인의 결합이었다. 그 성과는 과학·생산·법·정치의 혁신을 포함하지만 노예제·식민지배·환경파괴·전쟁의 비용과 분리할 수 없다. 아시아와 비서구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지식·상품·노동을 제공하고 근대 제도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행위자였다.

따라서 역사 비교의 올바른 결론은 “서양이 이렇고 동양이 저렇다”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어떤 시기,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이, 어떤 자원과 제도 아래, 어떤 외부 연결을 통해 특정 결과를 만들었는가이다.

19.2 앞으로의 연구 질문

- 로마와 한 제국의 붕괴 이후 왜 유럽은 다중국가 체제로, 중국은 재통일 왕조로 향했는가?
- 송대 상업·기술 발전은 왜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혹은 질문 자체가 유럽을 기준으로 만든 것인가?
- 에도 일본의 분권적 정치와 높은 문해·상업화가 메이지 국가건설에 어떤 자원을 제공했는가?
- 인도양과 이슬람 상업망이 유럽의 대항해와 자본주의에 어떤 지식·제도를 제공했는가?
- 식민지 법·교육·인프라는 독립 이후 국가역량과 불평등에 어떤 상반된 유산을 남겼는가?
-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은 서양·동양의 제도 차이를 줄이는가, 아니면 국가·기업 권력의 새로운 차이를 만드는가?

마지막 판단

역사는 문명의 서열표가 아니라 선택의 조건과 결과를 검토하는 도구다. 비교는 차이를 선명하게 하되, 그 차이가 변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줄 때 가장 유용하다.

장 요약 · 핵심 개념

경로의존 · 상호연결 · 다중원인 · 비교의 윤리 · 열린 결론

대표 사건	주요 인물·집단	일반적 오해	반론·보완	현대적 의미
대분기, 제국주의, 탈식민화, 세계화	역사가와 독자	비교사의 목적은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것이다.	비교사의 목적은 인과와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의 갈등과 발전모델을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

20

부록 A - 비교 연표

기원전 5 세기부터 21 세기까지의 주요 전환

시기	서양의 주요 전개	동양·비서구의 주요 전개	세계사적 연결
기원전 5-4 세기	그리스 폴리스·철학·페르시아 전쟁	전국시대·제자백가; 마가다 성장	정치경쟁과 사상적 혁신
기원전 3-1 세기	헬레니즘·로마 공화정 팽창	진 통일·한 제국; 마우리아	대제국·법·행정·도로
1-5 세기	로마 제정·기독교화·서로마 붕괴	후한 붕괴·분열; 불교 확산; 굽타	제국의 통합과 종교의 보편화
6-10 세기	비잔틴·프랑크·이슬람 팽창	수당·신라·발해·헤이안; 이슬람 인도 진입	종교권과 광역교역
11-13 세기	봉건왕국·도시·대학·십자군	송 상업화·고려·가마쿠라; 델리 술탄국	도시·상업·군사엘리트 성장
13-14 세기	몽골과 유라시아 교류·흑사병	원·고려·일본의 몽골 대응; 인도양 확대	연결망의 확대와 질병
15-16 세기	르네상스·종교개혁·대항해	명·조선·무로마치/전국·무굴·오스만	인쇄·화약·은·해상제국
17 세기	과학혁명·재정군사국가·대서양 노예제	청·조선·에도; 오스만·무굴	국가·시장·지식의 확대
18 세기	계몽주의·영국 산업혁명·혁명	청 전성기·에도 상업화·인도 식민지 확대	대분기 전후
19 세기	산업화·국민국가·제국주의	아편전쟁·메이지·개항·인도 민족주의·탄지마트	서구 우위와 선택적 근대화
1914-1945	세계대전·파시즘·공산주의	중국혁명·일본제국·한국 식민지·인도 운동·터키공화국	제국 붕괴와 총력전
1945-1990	냉전·복지국가·유럽통합	탈식민화·중국혁명·동아시아 개발국가	양극체제와 국가주도 발전
1990-현재	세계화·디지털경제·정체성 정치	중국 부상·인도 성장·한일 선진경제·중동 재편	수렴과 다중근대성

21

부록 B - 일반적인 오해 20 가지

동서양 비교에서 자주 반복되는 잘못된 명제

오해	교정
서양은 항상 민주주의였다	고대·중세·근대 대부분의 서양은 군주제·제국·과두정이었고 민주주의는 제한적·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양은 항상 전제정치였다	일본 막부·번, 인도 지역왕국, 이슬람의 울라마·도시·부족 등 다중 권력이 존재했다.
중국에는 재산권이 없었다	토지매매·상속·전당·계약이 활발했으며 문제는 권리의 범위와 집행 방식이었다.
유교는 상업을 금지했다	상인을 도덕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담론과 실제 상업·도시·신용의 성장은 공존했다.
서양 여성은 동양 여성보다 늘 자유로웠다	법·재산·교육·정치권은 모든 지역에서 시대와 계층에 따라 크게 달랐다.
카스트는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다	자타와 지역질서는 왕권·식민 통치·시장·정치에 따라 변화했다.
이슬람은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하나였다	칼리프·술탄·울라마·법학파·도시·부족의 권력이 분화되어 있었다.
중세 유럽은 완전한 암흑기였다	대학·도시·법·상업·기술이 성장했고 이슬람·비잔틴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은 과학이 없었다	천문·수학·의학·농업·인쇄·화약 등 강한 전통이 있었으며 근대과학의 제도화 경로가 달랐다.
산업혁명은 개신교 윤리 하나로 설명된다	석탄·임금·시장·제도·과학·식민지·전쟁이 함께 작용했다.
서구 근대화는 내부 자원만의 결과다	아메리카 은·토지, 노예노동, 아시아 시장과 지식이 중요했다.
동양은 근대화를 수동적으로 모방했다	메이지·양무·탄지마트·인도 민족주의는 선택적 재구성과 경쟁이었다.
조공은 일방적 복종체제였다	외교적 위계와 함께 무역·안보·국내 정당성의 실용적 교환이었다.
봉건제는 유럽 전체에 동일했다	잉글랜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동유럽의 토지·군역·농노제가 달랐다.
과거제는 완전한 능력주의였다	세습귀족을 약화했지만 교육·가문·재산의 불평등을 재생산했다.
법치와 관료제는 서양만의 발명이다	중국·이슬람·인도에도 성문법·전문관료·재판 전통이 있었다.
국민국가는 유럽에서 완성되어 세계에 복사되었다	식민지와 비서구 민족주의가 국민국가의 의미와 경계를 적극 재구성했다.
세계화는 문명 차이를 없앴다	제도·기억·국가능력·가족·기업 구조의 경로의존이 새로운 차이를 만든다.
문화가 경제성장을 직접 결정한다	같은 문화권에서도 정책·전쟁·계급·국제환경에 따라 성과가 달랐다.
동서양 비교는 무의미하다	범주를 유연하게 쓰고 내부 다양성과 연결을 포함하면 강력한 인과 질문을 만들 수 있다.

22

부록 C - 참고문헌과 더 읽을 자료

비교세계사·대분기·제국·문명론의 대표 연구

- Abu-Lughod, Janet L.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 Allen, Robert C.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in Global Perspective.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 Bayly, C. A.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 Braudel, Fernan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 Eisenstadt, S. N. "Multiple Modernities."
-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 Frank, Andre Gunder.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 Goody, Jack. The Theft of History.
- Hobsbawm, Eric. The Age of Revolution; The Age of Capital; The Age of Empire.
- Hodgson, Marshall G. S. The Venture of Islam.
- Lieberman, Victor.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 McNeill, William H. The Rise of the West.
- Mokyr, Joel. A Culture of Growth.
- Needham, Joseph.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 Osterhammel, Jürge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 Global History of the Nineteenth Century.
- Parthasarathi, Prasannan. Why Europe Grew Rich and Asia Did Not.
- Pomeranz, Kenneth.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 Said, Edward W. Orientalism.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 Wong, R. Bin.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 Hobson, John M.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sation.
- Darwin, John. After Tamerlane: The Global History of Empire.
- Subrahmanyam, Sanjay. Explorations in Connected History.

독서 방법

단일 저작을 정답으로 읽지 말고, 포메란츠·앨런·모키르·파르타사라티처럼 대분기의 원인을 달리 설명하는 연구를 병렬로 읽는 것이 좋다. 사이드의 표상 비판, 월러스틴의 구조 분석, 왕과 리버먼의 지역 비교, 아부-루고드와 호지슨의 연결사를 함께 사용하면 균형이 높아진다.

서양사와 동양사 비교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본 문서는 비교세계사의 학술적 쟁점을 교육·연구 목적으로 종합한 보고서입니다.